

# 장로교 진흥운동에 관한 연구: 1920년대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

**김병희**

(대신대학교, 조교수, 역사신학)

- I. 들어가는 말
- II. 진흥운동의 배경
- III. 진흥운동의 전개과정
- IV. 진흥운동의 역사적 의의
- V. 나가는 말

**[초록]**

해방공간까지 한국 장로교회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신앙운동이 일어났는데,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과 1909년 백만인구령운동, 그리고 진흥운동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중 진흥운동은 장로교 총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부흥 전도운동으로 1919년 말부터 두 단계로 나누어 전국적으로 추진되었다. 제1차 진흥운동은 1919년부터 1925년까지, 제2차 진흥운동은 1929년부터 1934년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3·1만세운동 이후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갱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진흥운동을 살펴본 것이다. 특히 1920년대 대구·경북지역 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진흥운동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전개된 진흥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된 장로교 진흥운동의 성격을 해명하는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의 교회는 장로교 총회가 추진한 진흥운동 방침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지역은 3·1만세운동으로 교역자들이 체포·투옥되어 교세(教勢)가 심각한 영향을 입을 정도로 지도력의 공백 상태에 있었으며, 수해와 재해,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으로 교회의 재정적인 타격이 심한 상황이었다.

대구·경북지역의 교회는 김익두 목사를 초청하여 진흥 부흥회를 실시하고, 특히 경북노회 소속 목사들이 전 교회적으로 진흥 부흥회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진흥 부흥회가 열린 곳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에 사로잡힌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새롭게 믿기로 결단하였으며, 모이는 집회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 각색의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거나, 토지의 십일조를 드렸으며 심지어 불신자까지 헌금을 하여 예배당을 매입하고, 신축·개축·증축하였으며, 교회를 수리하였다. 또 종각을 세워 종을 달고, 강대상, 시계, 풍금, 난로 등을 설치하여 비로소 현대식 교회 형태를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키워드:** 진흥운동, 진흥 부흥회, 진흥 사경회, 예배당 신축, 안수기도, 병 고침

논문투고일 2023.07.31. / 심사완료일 2023.09.01. / 게재확정일 2023.09.05.

## 1.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의 부흥은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가 소개된 1880년대부터 1890년대 초기까지를 전래와 접촉, 적응과 모색의 시기라 본다면, 1894~1895년 청일전쟁 이후부터는 점차 교회의 성장세가 뚜렷이 나타나는 시기라 볼 수 있다. 그러다 1903년·1904년에 원산 부흥운동, 1906년에 송도 부흥운동 등의 간헐적인 부흥이 있었고, 1907년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1909년에는 장로교와 감리교를 중심으로 전도운동인 백만인구령운동(百萬人救靈運動)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1900년대에는 신앙운동과 영적부흥, 그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 교회의 수적 성장세를 이룬 시기이기도 하다.<sup>1</sup> 이와 같은 성장세의 추이를 살펴보면, 1906년 당시 장로교인 수가 44,587명에 지나지 않았으나<sup>2</sup>,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당시 94,981명(213%)으로 50,000여 명이 증가하였고,<sup>3</sup> 1909년 백만인구령운동 당시에는 140,470명(147%)으로 3년 만에 무려 10만여 명이 증가하는 경이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sup>4</sup> 이 같은 현상은 1918년까지 160,909명으로 증가하다가, 1919년 3·1만세운동으로 16,838명이 감소하여 144,062명(12%)이 되었다.<sup>5</sup>

또한 일본 헌병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19년 말까지 3·1만세운동에 관계되어 피검된 장로교인은 남성 2,254명, 여성 232명으로 총 2,486명 중 교회에 종사한 사람의 수가 244명에 이른다.<sup>6</sup> 일제의 물리적인 탄압은 교회의 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지도력의 공백 상태를 가져왔으며, 여기에 패배주의와 허무주의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한국교회는 복음전도에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에 1919년 10월, 장로회 총회는 침체된 교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약해져 가는 교세를 만회하기 위해 진흥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해방 이전까지 한국교회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신앙운동과 부흥전도운동이 일어났는

1 이상규,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서울: 도서출판 생명의양식, 2014), 60.

2 W. Baird, "Figures That Speak," *KMF*, vol. II, no. 2(Feb., 1906), 69.

3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 제2회 회록』 1908. 9. 6.

4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 제4회 회록』 1910. 9. 18.

5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9회 회록』 1920. 10. 2.

6 김승태, "종교인의 3·1운동 참여와 기독교의 역할," 『韓國基督教史研究會』 25(1989), 22-24.

데,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1909년 백만인구령운동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나아가 이들 운동을 이어 가고 부흥전도운동으로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진흥운동을 주목하게 되었다. 진흥운동은 두 단계로 나누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제1차 진흥운동은 1919년부터 1925년까지 전개되었고, 제2차 진흥운동은 1929년부터 1934년까지 전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1920년대 진흥운동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전국적으로 전개된 장로교 진흥운동의 위치와 성격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전개된 진흥운동을 연구하는 것이 대구·경북지역 교회의 부흥전도운동을 이해하는 필수적 기초 작업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흥운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다행히 몇몇 저작에서 파편적으로 다루고 있어 진흥운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고,<sup>7</sup>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회의록』, 『경북노회록』, 『기독교신보』등을 활용하여 진흥운동의 배경, 전개 과정, 그리고 의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진흥운동의 배경

장로교 진흥운동은 3·1만세운동의 실패와 교세의 위축, 그리고 세계교회가 추진하는 진흥운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었다. 당시 한국교회는 3·1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동하였기 때문에 일제의 주목을 받아 그 핍박과 피해도 매우 컸다. 《표 1》에 나타나듯이, 한국 장로교회의 교인 수는 1919~1920년의 경우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데, 특히 1919년이 되면 무려 16,847명이 감소하게 되었다. 3·1만세운동 이후 일제의 물리적인 탄압이 교회에 양적인 피해를 입히고 교역자들이 피체·투옥됨으로 교회의 기능마저 마비되어 교회생활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sup>8</sup>

7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04); 이상규,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서울: 도서출판 생명의양식, 2014); 임희국, 『경안노회 100년사』 (경기도: 경안노회100주년준비위원회, 2020).

《표 1》 장로교회의 교인 수 증감(1918~1930)

연도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교인수	160,909	144,062	153,914	179,185	187,271	193,850	191,887
연도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교인수	193,823	194,408	159,060	177,416	186,994	194,678	

자료 : 한영제 편, 『한국기독교성장100년』(서울: 기독교문사, 1986)

이에 암울한 사회적 현실을 해결하고 한국교회를 갱신하기 위해 1919년 10월 평양장로회신학교에서 열린 제8회 장로회 총회에서 진흥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진흥운동의 주된 목적은 ‘지금 세계 만국기독교회가 진흥운동에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 조선교회도 이와 같이 진흥운동에 힘쓰고자’라고 진흥회 진행 방침에서도 밝히고 있다. 진흥운동(the Forward Movement)은 미국 북장로교의 “뉴 에라 운동”(New Era Movement), 감리교의 “세기운동”(世紀運動, the Centenary Movement)과 유사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진흥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진흥운동은 주일학교운동뿐만 아니라 부흥운동과 연계되어 장로교와 감리교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었다. 장로회 총회는 진흥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방위량 선교사, 서기 겸 회계에 주공삼 목사를 임명하였다. 하부조직으로는 전국 12개 각 노회에 대표 3인으로 구성된 진흥위원회를 조직하고 교회의 진흥책을 연구하여 실시토록 일임했다.<sup>9</sup> 각 노회별 진흥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sup>10</sup>

8 3·1운동 관계로 피검된 장로교 교인수는 2,486명으로 총피검자 19,525명의 13%를 차지하고, 기독교(천주교 포함) 총피검자 3,426명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3·1운동 이전보다 교회는 88개소, 신자는 무려 22,409명이나 줄어든 것이었다(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서울: 기독교문사, 1990), 38).

9 W. N. Blair, “Presbyterian Forward Movement in Korea,” *KMF* (January 1920), 15.

10 『조선예수교장로회 제8회 총회 회록』 1919. 10. 4.

평남노회 방위량 김영준 주공삼, 평북노회 윤산은 김기범 김석창  
 황해노회 장흥범 최인환 김룡승, 전남노회 로라복 정책인 이경필  
 전북노회 부위렴 양석주 이재익, 경남노회 매견시 정덕생 황준국  
 경북노회 방혜법 김영옥 이문주, 함남노회 마구레 김광표 박창영  
 함북노회 채필근 이하영 박 곁, 경충노회 곽안련 신흥균 최영택  
 의산노회 안승원 위대모 김석향, 산서노회 김대건 최성주 이기형

또 장로회 총회 진흥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진흥회 진행 방침을 정한 뒤, 진흥운동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을 널리 소개하기 위해 홍보 서신과 함께 진흥비교표 양식을 추가하여 출간하고 이를 각 노회로 발송하였다. 각 노회는 진흥운동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진흥비교표 양식에 따라 각 교회가 보고한 것을 수합하여 총회 진흥위원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의 직분회나 도사경회 시에 진흥 방법을 논의하여 진흥운동의 효과적인 방법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 진흥회 진행 방침<sup>11</sup>

하나님은 총중 각 교회가 평강희심을 축수 하옵노이다. 금번 총회에서 특별히 경영하온바는 현금 세계 만국기독교회가 진흥회를 힘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목격하옵고 우리 조선 교회도 이곳치 진흥홍일을 힘쓰고저하와 방척을 좌기하야 앙고 하오니 일심단테로 이일을 실행하야 풍성하 은혜를 함씩 받으시기를 바라옵노이다. 아멘

진흥비교표

	현지수	진흥회	비고
一, 주일레비회집수			현지보다四分지일증가
二, 삼일기도회집수			현지보다二分지一증가
三, 주일공부회집수(유년까지)			현지보다四分지一증가

11 「기독신보」 1919. 11. 12.

四, 가족기도회보는 집			비수이상증가
五, 사경회인원수남녀			현지보다四分지—증가
六, 성경학원학생수			현지보다四分지—증가
七, 신보구람자수			현지보다二分지—증가
八, 교역자연보수			현지보다二分지—증가
九, 전도국연보수			비수이상증가

### 주의사항

- 一, 이 광고를 받으시는 이는 우에 잇는 식양터로 기록하야 벽상에 붙치고 그 일을 실행할 것
- 二, 식양 중에 현지수는 지나간 五월 말일 보고터로 호되 만일 보고가 입스면 현지 형편터로 기록할 것
- 三, 식양 중에 진흥수는 一년간 힘써 일우을 목덕(주필노쓸 것)
- 四, 이 일은 락년 五월 말일 보고에 특별히 기지 홀터인디 목덕터로 된거슨 주필노 기록노쓸 것
- 五, 로회는 그 보고를 수합하야 총회전에 진흥위원장의게 보낼 것
- 六, 보고서에는 그 교회 구역자 씨명을 기록할 것
- 七, 이 일을 성취하기는 사람의 힘에 잇지 안코 하느님의 은회로 될줄 밋스오 니 특별히 기도함으로 성신의 도우심을 충만히 받기로 생각할 것
- 八, 각 지경 직분회나 도사경회시에 여러 직분들은 합당흔 방칙으로 연구하야 진흥할 일을 경영할 것

쥬후 一九一九년 월

진흥회위원장 방위량  
조선전국 각 교회

1, 2차로 실시된 장로회 총회 진흥운동 중 제1차 진흥운동은 1919년부터 1925년까지 전개되었고, 제2차 진흥운동은 1929년부터 1934년까지 전개되었다. 특히 1919년부터 1921년까지 3년 동안을 “진흥년”(振興年)으로 정하고,

첫 번째 해에는 준비와 개인전도, 두 번째 해에는 부흥회와 단체 전도, 그리고 세 번째 해에는 청년과 유년주일학교의 부흥에 초점을 맞추어 진흥운동을 전개하였다.<sup>12</sup> 특히 진흥운동이 추진된 지 두 번째 해인 1920년에는 총회적인 차원에서 전국교회가 연 1회 내지 2회의 진흥 부흥회를 개최하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지방마다 연합진흥사경회를 열도록 하였고, 노회마다 회기를 이용하여 대부흥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발맞추어 총회 진흥위원회는 사복음서의 여러 부분을 발췌하여 만든 열 가지 특별진흥전도지를 발간하여 축호전도용으로 전국교회에 배포하였다. 진흥사경회는 오전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였으며, 저녁에는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영적각성집회를 개최하였다.<sup>13</sup> 이때 매 회집마다 적게는 백여 명, 많게는 수천 명이 참석하였고, 이 기간동안 새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1929년부터 시작된 제2차 진흥운동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지 팸플릿·전도용 가이드북·신문과 라디오 등 매스컴을 이용한 새 전도 방법 등이 동원되었고, 청소년 문제 권위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예수교청년연합회 하기순회강연단을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순회공연을 실시하였다. 이는 단순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강의 후에 토의 시간을 두어 청소년들이 지닌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고자 한 것이었으며 단순한 복음 제시를 넘어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1930년 제20회 장로회 총회에서는 제3차 진흥운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진흥운동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해에는 헌신·성경보급·특별기도, 둘째 해는 대부흥 전도운동,<sup>14</sup> 그리고 셋째 해는 기독교 문화운동의 해로 설정하고 추진했다.<sup>15</sup>

이와 같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으로 인해 3·1만세운동의 실패 이후 수백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투옥되어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도 한국교회는

12 『경북노회 제7회 회록』 1920. 1. 21.

13 W. N. Blair, "The Progress of the Forward Movement in Korea." *KMF* (May 1921), 92.

14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0회 총회 회록』 1931. 9. 11.

15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2회 총회 회록』 1933. 9. 8.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세를 이어갔다. 1920년 11월 블레어의 진흥운동의 보고에 의하면 교회 출석이 25%, 기도회 참석이 50%, 주일학교 출석이 25%, 사경회 참석이 25%, 해외선교헌금이 100% 증가했으며,<sup>16</sup> 5,603명의 새신자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sup>17</sup>

한편 총회에 이어 각 노회에서도 진흥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대구·경북지역 교회에서는 경북노회를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진흥운동을 전개하였다. 경북노회는 진흥부를 조직하고 진흥위원으로 방혜법·이문주·김성로·염봉남·백신철·김영옥·강석진·김정모·인노절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효율적인 진흥운동을 전개하였다.<sup>18</sup>

### Ⅲ. 진흥운동의 전개과정

1920년대 대구·경북지역 상황은 3·1만세운동으로 인하여 대구남성정교회 이만집 목사, 대구신정교회 정재순 목사, 대구남산정교회 김태런 조사와 학교, 교계의 지도급 인사들인 백남채, 최경학, 김영서, 최상원, 권희운, 박문영, 이재인, 임봉선, 이선애 등이 모두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어 지도력에 공백기를 맞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에 더하여 농촌에서는 큰 수해로 교인의 집과 예배당, 그리고 토지가 유실된 곳이 많았으며<sup>19</sup> 한재와 병충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대부분 절대 빈곤의 상태였다. 여기에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수탈정책 때문에 생활 터전을 빼앗기고 대거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이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sup>20</sup>

바로 이러한 참담한 시기에 경북노회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민족이 안고

16 W. N. Blair, "Report of the 'Forward Move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for 1919-1920," *KMF* (November 1920), 223.

17 Roy E. Shearer, *Wildfire: Church Growth in Korea* (Grand Rapids: Eermans, 1966), 66.

18 『경북노회 제8회 회록』 1920. 6. 11.

19 『경북노회 제9회 회록』 1921. 1. 12.

20 朴慶植,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支配』 (서울: 청아출판사, 1986), 256-268.

있는 현실 문제를 신앙운동으로 극복하기 위해 총회가 실시하는 진흥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경북노회는 총회의 지시에 따라 진흥부를 대구와 안동에 설치하고 각 위원을 선택하여 진흥 사무 일체를 보게 하였다. 대구에는 염봉남·김성로 목사가, 안동에는 강석진·김정모 목사가 피선되었다.<sup>21</sup> 이리하여 경북노회 진흥부는 총회 진흥부와 연대하여 노회 내 개교회의 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sup>22</sup>

### 1. 총회 소속 김익두 목사의 진흥 부흥회

김익두 목사는 1901년 7월, 그의 나이 27세에 스왈론(W. L. Swallon)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매서인(賣書人)으로 활동하다가 1910년 평양신학교를 제3회로 졸업하고 황해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sup>23</sup> 1919년 10월 평남 강동의 열패교회에서 정석종 목사와 사경회를 인도할 당시 그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는 말씀에 감화를 받고 주께서 은사를 주시면 지금도 사도시대와 동일한 이적이 나타난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신유의 능력을 간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그해 11월, 신천에서 중병에 들린 홍경순에게 안수기도를 했는데 홍경순이 하루 만에 완쾌되면서 자신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것에 확신을 갖고 진흥 부흥회를 인도하기 시작하였다.<sup>24</sup>

김익두가 본격적으로 진흥 부흥회<sup>25</sup>을 인도하면서 진흥운동에 나서게 된 것은 1919년 삼일운동 직후였다. 온 민족과 나라가 독립청원운동과 함께 3·1만세운동을 전개하였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대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예배당과 학교 건물은 불에 탔다. 이러한 시련과 좌절 속에서 김익두의 진흥 부흥회가 시작된 것이다. 그가 인도한 집회에서 초자연적

21 『경북노회 제7회 회록』 1920. 1. 21.

22 W. N. Blair, “Presbyterian Forward Movement in Korea,” *KMF* (January 1920), 15-16.

23 박용규, 『안악산골-한국교회부흥목사 김익두 전기』 (서울: 크리스찬신문사출판국, 1968), 19.

24 金麟瑞, 「金益斗 牧師 小傳(五)」 『信仰生活』, 1941. 2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한국기독교의 역사』 2. 기독교문사, 96-102. 재인용)

25 여러 자료에서 다양하게 사경회·진흥사경회·진흥회·부흥회 등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논문에서 진흥 부흥회로 용어를 통일한다.

인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고 이는 한국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3·1만세운동 이후 희망을 잃은 민중들에게 삶의 용기를 불어 일으켰다.<sup>26</sup>

특히 진흥 부흥회를 인도하는 김익두는 평범한 시골 사람으로 도시 사람과 같은 세련미가 부족했지만 유식한 지식인들도 자리에 앉아 숨 죽여 가며 그의 설교를 들었다. 적절한 예화, 남다른 유머 감각, 확신에 찬 메시지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현존해 계신 것을 확신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정도여서<sup>27</sup> 청중들은 집회 내내 눈물을 흘리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다.<sup>28</sup> 그것은 1920년대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김익두의 진흥 부흥회는 새벽 5시부터 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오전 10시~12시에는 사경식으로 성경공부, 오후 2시~3시에는 성경요리공부, 3시~5시 30분에는 전교인의 노방전도, 저녁 7시~8시에는 제직기도회, 8시~8시 30분에는 찬송공부, 8시 30분~10시에는 저녁 강설회로 이어져 늦은 저녁까지 진행되었다.<sup>29</sup>

김익두의 진흥 부흥회를 통해 치유를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는 전국 258개 지역을 다니면서 776회의 진흥 부흥회를 인도하였고, 28,000여 번의 설교를 하였다. 그가 인도한 진흥 부흥회의 연간 참석 인원은 1,500,000여 명이었으며 이중 새신자 수는 288,000여 명이었다. 또 교회신축이 150여 교회, 증축교회 수가 140여 교회, 신설된 유치원 수가 120여 개, 증수 유치원 수가 100여 개, 치유 받은 사람이 10,000여 명이었다. 게다가 그의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된 사람이 200여 명이었으며, 선도하여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이 58명이었다. 이 중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신학자 김재준 목사와 한국교회의 대표적 순교자 주기철 목사, 그리고 그의 대를 이어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이성봉 목사도 있었다.<sup>30</sup>

26 민경배, “김익두 목사의 부흥운동과 그의 치병문제” 『동방학지』 54, 55, 56(1987), 303.

27 민경배, 『일제하의 한국기독교 민족 신앙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310.

28 金麟瑞, 「金益斗 牧師 小傳(四)」 『信仰生活』, 187.

29 金麟瑞, 「金益斗 牧師 小傳(四)」 『信仰生活』, 112.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장 먼저 김익두의 부흥회를 시작한 곳은 황금정, 송천, 지산, 화동, 설화, 고령읍의 여섯 교회였다.<sup>31</sup> 당시 경북노회의 보고에 따르면 교회 형편이 매우 어려운 중 1919년 김익두를 초청하여 1개월 동안 4처 교회에서 부흥회로 모여 새벽기도회, 성경공부, 저녁 강설을 듣고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① 김천군 아포면 송천교회는 6일 동안에 일반교인이 통회 자복하였고 예배당 수리비로 400여 원을 헌금하고 교역자 월급을 증납한 일.
- ② 김천읍교회는 큰 은혜를 받아 일제히 부활하여 독 목사를 청빙하게 된 일.
- ③ 달성군 화원면 설화동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은 중 교역자 봉급을 증가함.
- ④ 달성군 현풍면 하동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은 중 객기동교회와 합하여 교역자를 청빙하고 10년 전에 낙함(落頤)된 사람이 김익두 목사의 기도로 치유됨.<sup>32</sup>

위의 보고에 대해 경북노회록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김천 송천교회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낙심한 성도들이 다시 은혜를 받고 회개한 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달성군 설화동교회의 집회에서는 참석한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 새로 믿는 사람이 30여 명에 달하였다. 특히 1919년 12월 현풍읍교회에서 개최된 진흥 사경회는 김익두가 진흥운동을 시작하면서 신유 역사가 처음 일어난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10년 동안 아래턱이 떨어져서 다물지 못한 채 말도 못 하고 음식도 씹지 못하여 누워서 물을 넘기는 박수진(朴守眞)이 있었다. 그는 침이 흘러 턱받이를 걸고 막대를 짚고 다니며 연어먹었기 때문에 막대 걸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 진흥 사경회에서 하루 두 번씩 기도한 지 나흘째 되던 날에 그의 아래턱이 올라붙는 기적이 나타났다. 그가 새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를 목격한 사람들 중 이미 믿는

30 金麟瑞, 「金益斗 牧師 小傳(四)」 『信仰生活』, 116-117.

31 이 지역은 경북노회 소속 서편지방시찰 경내이다.

32 「기독신보」 1920. 2. 4.

성도들은 다시 믿음이 깨어나는 은혜를 받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았다. 이 일을 계기로 그의 집회에는 각색 병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진흥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후 하동교회의 진흥 사경회에서는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헌금하던 중 처음 믿기로 작정한 최성란이 1,000원의 거금을 헌금한 일이 있었다.<sup>33</sup>

한편 김천군 황금정교회는 1919년 12월 22일부터 한 주 동안 김익두를 초청하여 진흥 부흥회를 개최하였다. 황금정교회는 그해 봄에 큰 바람의 피해를 입고 소망이 없던 중, 진흥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20여 처 교회와 조사 6명이 협력하여 매년 600원 이상의 헌금을 내어 목사를 청빙하기로 하였다.<sup>34</sup>

고령군 다산면 호촌동 출신 장의덕(張義德, 36세) 부인은 3년간 반신불수로 고생하며 각처의 유명한 의원을 찾아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아무 효험이 없었다. 그러다가 마차를 타고 김익두의 진흥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날은 부흥회가 끝나는 날이어서 기도를 받지 못하고 김익두가 밀양으로 또 다른 진흥 부흥회를 하러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밀양까지 찾아가서 두 번의 기도를 받고 손과 발에 맥이 돌고, 힘이 나서 차차 낫게 되었다.<sup>35</sup>

경산군 경산읍교회에서는 1920년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한 주간 김익두를 초청하여 진흥 부흥회를 개최하였다. 진흥 부흥회 나흘째인 20일, 중방리 강낙삼(姜洛三)의 부인 김순금(金孫今, 32세)은 3년 전부터 앓아 온 심한 풍으로 무릎 밑의 살이 감각을 잃은 상태였는데 부흥회가 끝나는 날 완치가 되는 체험을 하였다. 또한 17년 동안 혈우병으로 문밖을 출입하지 못하고 고생하던 박달옥은 김익두가 인도하는 진흥 부흥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고 자기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였으며 그 외에도 각종 병자 40여 명이 집단으로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외에 진흥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받은 김성룡 장로는 600여 원의 채권을 탕감하여 주었고, 불신자인 이상학은 교회 내 소학교 건축을 위하여 대지 300여 평을 기부하는 일이 있었으며, 교인들도 3,000여 원을 헌금하였다. 또 새롭게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40명이었으며, 낙심하였던 사람들

33 『경북노회 제7회 회록』 1920. 1. 21.

34 「기독신보」 1920. 1. 14.

35 박용규, 『안악산골 - 한국교회부흥목사 김익두 전기-』, 145.

이 다시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sup>36</sup>

경주군 경주읍교회는 1922년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김익두를 초청하여 진흥 부흥회를 개최하였다. 이 집회에는 일반인이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각 교회에서 낮 공부에 천여 명이 참석하였고, 저녁 강연회는 불신자까지 합하여 2천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병자 90여 명이 고침을 받았다. 그 중에는 소경과 절름발이, 그리고 풍증 등을 가진 이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였다. 이 일 외에 은혜받은 사람들이 예배당 신축을 위해 3천여 원을 헌금하였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읍촌 간에 200여 명에 달하였다.<sup>37</sup>

1923년에는 대구 4처 교회(대구남성정교회, 대구남산정교회, 대구신정교회, 대구칠성정교회)가 연합 부흥회를 열고 김익두를 초청하여 17일간 진흥 부흥회를 개최하였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예배소서, 베드로전·후서, 말라기를 가르쳤다. 그 결과 새로 열심을 얻고 죄에서 사함을 받은 교인들이 많았으며, 새롭게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200여 명이 되었고, 남녀소학교와 교회를 위해 1,500여 원을 헌금하였다.<sup>38</sup>

또한 1928년 청도군 송서교회와 수야교회는 김익두를 초청하여 진흥 부흥회를 개최하여 새롭게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50여 명이었으며, 수야교회는 예배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6백 원을 헌금하였다.<sup>39</sup>

이외에도 자세한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김익두는 대구, 경주, 월성, 포항, 영일, 영덕, 영양, 봉화, 청송, 영주, 내성, 안동, 의성, 영천, 예천, 경산, 군위, 청도, 왜관, 성주, 칠곡, 김천, 상주, 점촌, 문경, 고령, 달성 등 대구·경북의 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27개 교회에서 초청을 받고 진흥운동을 전개하였다.<sup>40</sup> 그가 인도한 진흥 부흥회는 대구·경북의 교회사에 전무후무할 정도로 가장 강력한 한 이적이 동반된 부흥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36 『경북노회 제7회 회록』 1920. 1. 21.

37 『기독신보』 1922. 5. 31.

38 『기독신보』 1924. 1. 23.

39 『경북노회 제24회 회록』 1928. 6. 5.

40 박용규, 『안악산골 - 한국교회부흥목사 김익두 전기-』, 114.

## 2. 경북노회 소속 교역자들이 인도한 진흥 부흥회

김익두의 진흥 부흥회와 궤를 같이 하는 진흥 부흥회는 경북노회 진흥부를 중심으로 여러 교역자들이 전개한 진흥운동이 있다. 특히 김성로 목사<sup>41</sup>는 김익두의 진흥운동의 열기를 이어갔다.

《표 2》김성로 목사의 진흥 부흥회 현황

	교회	주소	날짜	낮 공부	저녁 강연	새로 믿은 자	병고침	특별헌금
1	황금정교회	김천군	1919. 12.12 한주간					20여 처 교회와 조사 6명이 협력, 매년 현금 600원 이상
2	고령읍교회	고령군	1921. 8.31-9.4	200여 명	1,000여 명	60명	40여 명	불신자 강치수씨 일등답 20여 평 기부
3	평리동교회	고령군 다사면	1922. 1.7-10			3명 낙십자 4명		예배당 중 구입 현금 50여원
4	황금정교회	김천군	1922. 2.5-		500여 명	40명		성경공부 후 전도대 조직 학교경비 현금 80여원
5	산운교회	의성군 산운면	1922. 3.1-5	300명 이상	500명 이상	20여 명	20여 명	총 및 예배당 수리 현금 190원
6	대리교회	의성군 조문면	1922. 3.6-10	250명 이상	500명 이상	70명	51명	예배당 건축 현금 500원 이상
7	이동교회	의성군 산운면	1922. 3.11-15	350명	500명 이상	34명	56명	예배당 수리 현금 260여 원
8	오대동교회	의성군 산운면	1922. 3.16-21	500여 명	1,000여 명	70여 명	42명	예배당 신건축 현금 1,300원
9	삼산동교회	의성군 봉양면	1922. 3.20-26	350명	700명 이상	80명	53명	예배당 수리 현금 250여 원

41 김성로(金聖魯, 1882. 9. 15~1951. 2. 5) 목사는 황해도 안악(安岳)에서 김기호(金基浩)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1908년 김천 파천교회에 출석하면서 집사가 되었고 이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1917년 평양신학교를 졸업(제10회)하였다. 그해 경북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해리 선교사의 동사 목사가 되어 고령 삼대교회, 안림교회, 원송교회, 현문교회, 산당교회, 달성 하동교회를 겸임하여 1920년 6월까지 시무하였다. 1920년에는 김천 황금동교회에서 시무하였으며, 그해에 경북노회장에 피선되었고 1922년 경북노회의 파송으로 울릉도교회 순행목사로 울릉도 각 교회를 돌며 부흥회를 개최하였다. 1925년 황해도회로 이명하여 황해도 안악지역에서 시무하다가 함경도 길주교회로 옮겨 시무하였다. 그는 평생을 구령사업에 힘썼으며, 부흥사로 112개 교회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여 3,500여 명을 결신케 하였다. 그 후 그는 신앙서적을 저술하며 노년을 보냈다. 1951년 2월 5일 용인 고매리에서 향년 70세로 소천하여 고매리에 안장하였다가 1970년 포천군 소흘면 이동리 동신교회 교회묘지로 이장하였다.(김병희, 『대구·경북 조사인물편람』 (대구: 대신대학교 부설 기독교역사문화연구소, 2013), 58-59)

10	영덕읍 교회	영덕군	1922. 3.30-4.7	300여 명	700여 명	105명	90명	예배당 신축 현금 1,500원 학당 설립
11	송천동 교회	영덕군 병곡면	1922. 4.8-16	500여 명	1,000여 명	120명	116명	예배당 건축 현금 1,060원
12	낙평 교회	영덕군 지품면	1922. 4.17-25	400명 이상	500여 명	96명	110명	예배당 신축 현금 738원
13	수락동 교회	청송군 현서면	1922. 5.8-12	100여 명	400여 명 각처 교회 200여 명	75명	70여 명	예배당 수리 현금 200여 원
14	자천 교회	영천군 신촌면	1922. 5.13-18	50여 명 각처 교회 60여 명	200여 명	60여 명	57명	화덕 및 예배당 수리 현금 510원
15	옥산 교회	경주군 강서면	1922. 5.19-24	450여 명	7,800여 명	144명	122명	예배당 건축 현금 420여 원
16	성법 교회	영일군	1922. 7.14-23	300여 명	600여 명	217명 낙십자 3명	38명	예배당 건축 현금 700여 원
17	지례읍 교회	김천군	1922. 8.5-9		수십명씩 회집(공립보 통학교에서 모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많음	12세 여자아이가 다리 절뚝거리던 아이가 완치	
18	화신동 교회	의성군 비안면	1922. 8.29-	100여 명	350여 명	22명	22명 합심기도 중 전신불수자 1명 완치	
19	동산 교회	의성군 안평면	1922. 9.4-8	200여 명	4,500여 명	60여 명	37명	예배당 건축 현금 470여 원 불신자 여러 명이 현금함
20	도리원 교회	의성군 봉양면	1922. 9.9-14	200여 명	인산인해	46명 낙십자 1명	26명	
21	홍해읍 교회	영일군	1922. 9.20-29	50여 명	500여 명			예배당 신축 현금 1,570원
22	포항 교회	영일군	1922. 10.10-19	150여 명	500여 명	33명	41명	종 및 종각 현금 540여 원
23	청단동 교회	의성군 산운면	1922.	250여 명	400여 명	30여 명	30여 명	종 현금 180원
24	현리 교회	의성군 가음면	1922.	150여 명	300여 명	20여 명	20여 명	강대상 현금 60여 원
25	학미 교회	의성군 산운면	1922.	350여 명	500여 명	56명	30여 명	현금 260원
26	청하리 교회	연일군	1922.	200여 명			30여 명	5처 교회 신축 현금 450여 원 6처 교회 종 현금 60여 원
27	천산읍 교회	선산군	1922.	70여 명	300여 명	30여 명	20명	임종하 목사 200원 가치 토지 종 현금 90원 불신자들이 다대한 연조
28	울릉도 교회	울릉군	1922. 2주간	28명	100명		38명	도동교회당 수리 현금 150원
29	발산 교회	영일군 동해면	1922.	150여 명	300여 명			종 및 종각 현금 300여 원

30	오산교회	청도군 각북면	1923. 2.20-28	300여 명	수백 명		10여 명	사숙 창립 헌금 150여 원 중 헌금 50여 원
31	예천읍교회	예천군	1923. 3.29-4.2		1,000여 명	50여 명	20여 명	전도실, 종각, 여학교 위한 헌금 350원
32	서사동교회	예천군 하리면	1923. 4.9-15	100여 명	500여 명		사귀 들린 자 1명 완치	예배당 건축 헌금 148원 화재 헌금 10여 원
33	경주읍교회	경주군	1923. 11.18-25	200명	3·400여 명	수십 명		교회증축 부채 헌금 400여 원 헌금 480여 원
34	중평동교회	안동군 임동면	1923. 11.20-	120여 명	300여 명	38명	30명	예배당 건축 헌금 300여 원
35	주곡동교회	영양군 일월면	1923. 11.27-	150여 명	5·600여 명	30여 명 낙심자 1명	40여 명	여학교 유지 헌금 320여 원
36	읍내리교회	영주군 순흥면	1923.	130여 명	4·500여 명			학당 건축 헌금 300여 원
37	도리원교회	의성군 봉양면	1923.	100여 명	3·400여 명			예배당 건축 헌금 330원
38	삼분교회	의성군 다인면	1923.	200여 명	5·600여 명	30여 명	산후증 고침	예배당 건축 헌금 380원 불신자 중 기와 헌물
39	대원동교회	신안군 옥산면	1923.	100여 명	수백 명	10여 명		예배당 건축 헌금 340여 원
40	상금곡교회	예천 룡문면	1923. 1주간	100여 명	6·700여 명	수십 명		
41	성곡동교회	영주군 장수면	1923. 1주간	100여 명	5·600여 명	20여 명		예배당 건축 헌금 80여 원
42	로연동교회	의성군 단북면	1923.		300여 명	10명	20명	예배당 수리 헌금 40여 원
43	왜관교회	칠곡군	1924.		시내유지 다수 참석			

자료:「기독신보」1919~1924년.

위와 같이 김성로는 대구·경북지역의 43개 교회에서 진흥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이외에도 1920년에는 청도군 성현교회·칠곡교회, 청송군 구산교회·수락교회, 칠곡군 칠곡읍교회, 김천군 지좌동교회, 경산 등지에서 진흥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1921년 봄에는 의성 수정, 오대, 대리, 고산, 청로, 현리, 의성읍 등 여러 교회에서 김성로를 초청하여 부흥회를 개최하였는데 새롭게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수백 명이 되었으며 병자가 고침을 받는 신유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때 큰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 자원하여 헌금하였고 새로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 많았다.<sup>42</sup>

42 『경북노회 제10회 회록』 1921. 6. 15.

경북노회가 진흥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부흥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성과를 거두어 1922년 6월 14일, 경북노회 제12회 정기노회에서 김천 황금정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김성로를 부흥회 목사로 특별히 선정하여 각 교회를 다니며 순회부흥회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후 김성로는 의성지방 7개 교회, 영덕지방 3개 교회, 청송지방 2개 교회, 영천지방 자천교회, 경주지방 옥산교회에서 부흥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새롭게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1,000여 명에 이르렀고, 헌금은 10,000여 원에 달하였다. 특히 부흥회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운집하여 마당에 서서 설교하였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육신의 병든 자들이 많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다.<sup>43</sup>

이후 김성로는 대구·경북지역의 진흥운동과 부흥을 위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황해도회 소속 장연교회로 목회지를 옮겨 갔다.<sup>44</sup> 그는 진흥운동이 시작된 1919년부터 황해도회로 이명하기 전 1924년까지 50여 교회에서 진흥부흥회를 인도하였다. 1894년부터 1919년까지 대구·경북지역에 설립된 교회가 202개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sup>45</sup> 그는 이 지역에서의 진흥운동을 주도하였고 가장 영향력을 끼친 목사였다.

김성로 외에도 대구·경북 지역에서 진흥운동을 전개한 인물은 여러 명이 있다. 이들은 대구·경북 지역 곳곳에서 진흥 부흥회를 전개하였는데 이때도 동일하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 이들의 활동으로 낙심하여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돌아오고 새로 믿기로 결심하는 이가 많았으며 십일조를 작정하는 성도들이 생겨났고, 또 헌금하여 예배당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고 종탑을 새로 세우거나 종을 새로 다는 일들이 일어났다.

진흥 부흥회를 인도한 인물로는 1920년 김천군에 부흥회를 인도한 김용태 조사, 이희봉 목사, 영일군에서 부흥 사경회를 인도한 이문주 목사, 대원교회에서 진흥 부흥회를 인도한 임종하 목사, 칠곡, 경산에서 진흥 부흥회를 인도한

43 『경북노회 제12회 회록』 1922. 6. 14.

44 『경북노회 제17회 회록』 1925. 1. 7.

45 김병희 편역, 『경북교회사』 (서울: 코람데오, 2004); 차재명, 『朝鮮예수敎長老會史記』 (서울: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1928) 참조.

권영해 목사가 있다. 1921년에는 청도군에서 이기선 목사, 김천군에서 윤상기, 성주군 동암교회에서 주성택 조사, 중리교회에서 진권두 조사, 김흥주 장로, 달성군 지산교회에서 강만호 장로, 고령군 안림교회에서 박우만 선교사가 있었다. 1922년에는 영일군 조사리교회에서 염봉남 목사, 달성군 무등동교회<sup>46</sup>와 고령군 원송교회에서<sup>47</sup> 임문길 조사, 안동군 소호리교회<sup>48</sup> 이대영 목사가 있었으며 1923년에는 영천군 원촌교회에서<sup>49</sup> 이태학 조사, 영일군 가사동교회에서 강만호 장로, 김천군 송천교회에서<sup>50</sup> 김병호 목사, 동군 소호리교회에서 정재순 목사, 영천군 동도교회<sup>51</sup> 이석락 목사, 안동군 상이동교회에서<sup>52</sup> 입학수 조사가 있었다.

특히 1924년 변선옥 조사는 영일군 평사리교회에서 열린 진흥 부흥회, 강연회를 인도한 결과 새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강효선 영수는 강대상과 의자를, 강필선 부인은 30원 가치의 종을 기부하였다.<sup>53</sup> 이외에도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서도 이적이 일어났는데 십 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던 70세의 노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새벽기도에 힘쓰던 중 눈이 다시 밝아졌다. 고령군 월산교회의 85세 노인은 자리에 누워 집 안의 뜰조차 출입하지 못하였는데 기도의 힘으로 완전히 고침을 받고 자유롭게 전도하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났다.<sup>54</sup> 기산교회의 신씨 부인은 7~8년 동안 중병으로 고생하던 중 19일 동안 금식기도하는 가운데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sup>55</sup>

진흥 부흥회는 개인의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경제 개념도 바뀌게 되어 각 교회에서는 기부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오랫동안 모은 돈을 기부하여 종을 구입하여 설치하고 또 헌금하여 새로 예배당을 신축하거나 수리하였으며, 저축하였

46 「기독신보」 1922. 5. 17.

47 「기독신보」 1922. 3. 8.

48 「기독신보」 1922. 11. 8.

49 「기독신보」 1923. 7. 25.

50 「기독신보」 1923. 7. 18.

51 「기독신보」 1923. 10. 17.

52 「기독신보」 1923. 10. 10.

53 「기독신보」 1924. 3. 5.

54 『경북노회 제7회 회록』 1920. 1. 21.

55 『경북노회 제10회 회록』 1921. 6. 15.

던 돈을 선교사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전도국으로 보내기도 하였다.<sup>56</sup> 또한 이 시기에는 교회마다 부인전도회를 조직하고 전도인과 전도부인을 각 지역으로 파송하여 전도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로 찾아왔으며 교회는 점점 부흥하여 교회를 설립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진흥운동의 성장세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로회 총회 1920년도 진흥비교표와 각 노회 진흥수 비교표 중 《표 3》 제1년에 진흥비교표 중 진흥 추진 9개 항목을 충족한 일등 교회의 노회별 분포를 보면 황해 6개 교회, 평북 7개 교회, 평남 6개 교회, 경북 11개 교회, 전북 2개 교회, 전남 1개 교회가 달성하였다. 경북은 11개 교회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이등 교회 경우 황해 6개 교회, 평북 18개 교회, 평남 14개 교회, 경기 1개 교회, 경북 17개 교회, 전북 3개 교회, 전남 8개 교회, 함남 1개 교회, 함북 1개 교회가 달성하였다. 그중에 경북은 평북 18개 교회 이어 17개 교회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표 5》각 노회 진흥수 비교표를 살펴보면, 경북은 202개 교회 중 진흥운동에 참여한 교회가 무려 89%에 이르는 179개 교회이며, 12개 노회 중 진흥운동 진행 방침 9개 진흥 항목대로 달성한 교회 수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3》제1년에 진흥비교표 중 우등되는 교회  
(일등 교회, 이는 진흥표에 9조목 다 진흥수 이상으로 된 교회)

도명	군명	교회	선교사	조선목사 및 조사
평북	강계	통포동	함가륜	곽태서
평북	강계	통포동	함가륜	곽태서
평북	선천	복회	윤산온	백시찬
평북	선천	남회	윤산온	김석창
평북	정주	곽산	라부열	김진근
평북	구성	읍교회	라부열	신봉상
평북	구성	남시	라부열	신봉상
평남	안주	상팔	방위량	김득창

56 『경북노회 제14회 회록』 1923. 6. 13.

평남	강동	삼등	허일	
평남	대동	섬걸	손안론	이운모
평남	동강	동강읍	손안론	김치근
평남	동강	줄바우	손안론	김치근
평남	평양부	장대재		변린서
경북	영양	계동	인노절	남수용
경북	예천	갈밭	인노절	황영규
경북	선산	상모	방혜법	임종하
경북	칠곡	읍내	방혜법	권영해
경북	달성	침산	방혜법	권영해
경북	칠곡	신동	방혜법	임문주
경북	경산	경산읍	방혜법	
경북	안동	밥장	안대선	
경북	안동	온혜	안대선	강석진
경북	영주	영주읍	안대선	강병주
전북	의산	렴문	마로덕	정창신
전북	금산	금산읍	마로덕	이춘원
전남	완도	신학리	맹현리	조치연
전남	광주	청운	도태선	
전남	광주	도산	도태선	
전남	목표	양동		이경필
황해	곡산	무릉	허대전	김문길
황해	곡산	우밀	허대전	박성린
전남	김제	구봉리		이자익
함남	안변	읍	배례사	황준식
황해	봉산	사리원	한위렴	오응식
황해	재령	정석두	한위렴	최정환
황해	재령	상거	한위렴	이승길
황해	재령	맹산	한위렴	윤여한
경북	대구	남		

자료: 『조선예수교장로회 제9회 총회 회록』 1920년 10월 2일.

《표 4》제1년에 진흥비교표 중 우등되는 교회  
(이등 교회, 이는 진흥표에 8조목 교회까지 진흥수 대로 된 교회)

도명	군명	교회	선교사	조선목사 및 조사
평북	강계	동사동	감부열	김대전
평북	강계	인가해	감부열	김대전
평북	초산	구룡동	합기론	함성용
평북	위원	내동	합기론	김창옥
평북	후창	대흥동	감부열	이룡빈
평북	의주	정심단		안승원
평북	의주	남재동		박봉렬
평북	의주	남산동		박봉렬
평북	의주	신의주	위대모	장성식
평북	의주	미력동	위대모	장성식
평북	의주	마전동	위대모	홍희순
평북	삭주	신평	남행리	박정흠
평북	삭주	원리	남행리	박정흠
평북	의주	등단		김도순
평북	의주	테마	남행리	김석항
평북	의주	운찬덕	위대모	라자승
평북	의주	읍동	위대모	최득의
평북	선천	동림	윤산온	장구명
평남	평원	검산	방위량	이치수
평남	개천	목진대	방위량	김희두
평남	개천	군모루	방위량	김희두
평남	안주	입석	방위량	김득창
평남	평원	석암	방위량	석근옥
평남	평원	영우읍	방위량	김찬규
평남	성천	선천읍	허일	
평남	성천	회창	허일	
평남	순천	남포	허일	
평남	중화	고읍	모의리	김정철
평남	대동	양디리	방위량	노인목
평남	대동	추자도	소안론	김리제
평남	강서	모락	소안론	송관범
황해	황주	룡연	편희설	정명리
황해	황주	금산	편희설	백승건
평남	평양	사창골	방위량	이인식
충북	보은	읍내	재군	곽경한
경기	파주	신산리	로해리	최정준

경기	시흥	광명리	로해리	차재명
경북	의성	비봉	방혜법	이상기
경북	고령	문현	부해리	김성로
경북	영덕	영덕읍	권찬영	김성규
경북	영덕	낙평	권찬영	김성규
경북	예천	괴당	인노절	황영규
경북	상주	서정동	방혜법	이희봉
경북	상주	유천	맹의와	
경북	상주	송림	안대선	
경북	영주	지신동	안대선	강신충
경북	봉화	해저	안대선	강병주
경북	안동	장수골	안대선	강석진
경북	영주	풍기	안대선	강석진
경북	영주	순흥	안대선	강석진
경북	청송	삼의	인노절	윤호영
경북	의성	결촌	인노절	김성배
경북	고령	평리	부위렴	이문길
경북	현풍	읍내	부의렴	이상철
전북	전주	시평리	마로덕	정창신
전북	익산	서두리	마로덕	정창신
전북	전주	남문밖	마로덕	정창신
전남	목포	양동	루서백	이경필
전남	완도	관산리	맹현리	박선래
전남	장흥	도청리	맹현리	박선래
전남	무안	덕산리	맹현리	김정윤
전남	해남	해남읍	맹현리	원덕찬
전남	무안	대척리	맹현리	김정윤
전남	해남	배진	맹현리	조치언
황해	곡산	꽃바우	허대전	이병준
황해	곡산	생왕	허대전	박성린
전남	광주	구왕	도태선	
함남	안변	석교	배레사	황준식
함북	경흥	굴포	매도남	정기현
황해	신천	문화읍	한위렴	박순
황해	안악	오촌	한위렴	허성목

자료: 『조선예수교장로회 제9회 총회 회록』 1920년 10월 2일.

《표 5》각 노회 진흥수 비교표

노회	보고한 교회수	각도목에 진흥수 대로 된 교회수									진흥9조 중에 5조까지 온전히 된 교회수					도합
		1	2	3	4	5	6	7	8	9	9	8	7	6	5	
함북	25	13	10	16	10	8	1	12	14	11		1	5	3	3	12
함남	32	10	5	6	8	7	4	15	12	7	1	1	2			4
선서	79	44	31	42	21	26	6	31	30	20	2	5	4	9	8	28
의산	54	46	44	44	38	38	11	48	33	36		12	9	9	7	37
평북	112	57	52	59	33	41	13	66	32	41	5	1	3	8	11	28
평남	206	135	130	135	126	114	39	118	72	58	8	17	25	25	32	117
황해	53	31	36	44	23	27	20	41	16	18	4	2	7	10	8	31
경중	80	39	29	39	29	21	7	32	51	44		3	6	8	9	26
경북	179	101	96	109	120	117	56	94	118	125	11	17	26	16	15	85
경남																
전북	71	34	24	31	21	33	10	27	47	20	3	3	9	1	5	21
전남	49	36	29	32	34	29	9	36	29	33	4	8	10	7	3	32
도합	942	546	486	557	463	461	176	520	454	413	38	70	106	106	101	421

주의, 경남노회는 매우 재미있는 보고를 하였으나 도합으로만 하였으니 이 비교표에 기록하지 못함

자료: 『조선예수교장로회 제9회 총회 회록』 1920년 10월 2일.

그리고 1921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진흥위원회에 보고에 따르면, 진흥 추진 9개 항목을 충족한 일등 교회는, 황해 3개 교회, 평북 2개 교회, 평남 5개 교회, 경북 5개 교회, 전북 2개 교회, 전남 1개 교회가 달성하였다. 그중 평북과 경북은 각 5개 교회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등 교회 경우 황해 2개 교회, 평북 11개 교회, 평남 5개 교회, 경북 12개 교회, 전북 1개 교회, 전남 4개 교회, 함남 1개 교회, 함북 2개 교회, 경남 2개 교회가 달성하였는데 그중 경북은 12개 교회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각 노회별 진흥운동에 참여한 교회 수는 함북 19개 교회, 함남 36개 교회, 선서 100개 교회, 의산 54개 교회, 평북 108개 교회, 평남 192개 교회, 황해 12개 교회, 경북 164개 교회, 경남 24개 교회, 전북 42개 교회, 전남 9개 교회이다. 경북은 평남 다음으로 많은 숫자이며, 경북은 202개 교회 중 진흥운동에 참여한 교회가 무려 81%에 이르는 164개 교회가 참여하였다.<sup>57</sup> 또한 《표 6》경북노회 총계표(1918~1930)를 통해 검토해 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진흥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1920년~1924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57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0회 회록 총회』 1921. 9. 10 참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진흥운동 초기 김익두와 김성로가 신유의 역사를 동반한 활발한 진흥운동을 전개한 결과라 하겠다.

《표 6》경북노회 총계표(1918~1930)

연도	조직	미조직	기도처	예배당	신설예배당	입교인수	교인수
1918	26	243	94	274	18	962	15331
1919	33	234	165	275	20	4011	13359
1920	46	230	160	183	21	3713	14824
1921	69	263	225	318	56	7750	20065
1922	38	177	109	186	42	4562	12770
	23	113	97	121	24	3223	7228
1923	56	193	144	230	12	4653	13681
	29	102	48	126	16	2691	7018
1924	45	187	133	216	12	4478	13229
	33	105	69	135	8	2425	7153
1925	52	188	46	237	22	3658	13331
	30	99	36	129	8	2580	7421
1926	59	170	55	213	35		13307
	40	82	34	114	7		6992
1927	46	187		225	10	1855	7341
	34	87		124	8	1429	4777
1928	47	126		240	21	4234	6137
	38	90		128	1	1249	2472
1929	64	228		229	16	3961	11135
	40	89		129	6	2096	7112
1930	91	189		280		4100	13455
	18	87		129		1822	7030

자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회록』 1918~1930년.

이와 같이 진흥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경북노회 각 시찰 보고에서도 그 성장세가 잘 나타나고 있다. 대구지방시찰 경우 3·1만세운동의 실패와 교회

지도자의 공백기, 대구남성정교회 청년들의 투서사건과 계성학교 학생들의 동맹휴업사건으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교인의 수가 3분의 1 이상 증가하였다.<sup>58</sup> 서편지방시찰 경우에는 각 교회가 부흥하여 교육열이 전보다 배나 높아졌고 각 교회의 회집 수는 전보다 증가하였는데 그중에는 3, 4배 증가된 교회도 많았다.<sup>59</sup> 그리고 각 교회의 재정면에서도 전보다 3~4배나 증가되어 교회 운영에 어려움이 해결되었고, 전도에 필요한 사업 경비도 예년보다도 6배나 늘어나 60 진흥전도대를 조직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력한 결과 새로 믿는 사람이 많았다.<sup>61</sup>

그러나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한 진흥운동에 비판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김익두의 집회마다 동일하게 일어난 놀라운 신유의 역사로 인하여 그동안 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3장 1조에 “금일에는 이적 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느니라”고 하는 팔호 안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1922년 황해노회가 총회에 헌의하여 총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각 노회의 헌법 수입 과정에서는 부결이 되었다.<sup>62</sup>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지만 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교역자들에게는 적지 않는 부담과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경북노회의 교역자회에서 청원하기를 “어느 교회나 어떠한 사람을 무론하고 사경회 때나 부흥회 때 병 고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청원하였고, 노회는 그대로 허락하기로 가결하였다. 이는 부흥회는 신앙을 부흥케 할 목적이고, 사경회는 성경도리를 가르칠 목적이므로 부흥회와 사경회를 위한 광고에서 병 고친다는 광고는 신지 않기로 하였다. 그것은 많은 병자들이 모이게 되어 일반교인들이 성경과 교리 공부에 많은 방해가 되었다는 궁색한 이유 때문이다. 특히 그들은 불완전한 이적이 주님의 참 이적을 의심하게 하여 목사 외에 안수기도는 장로교 헌법에 위반되므로 금하였다.<sup>63</sup> 그러나 문상기, 오자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사람이 안수기도를 통해 병을 고치는 일을 계속하였다. 이에 경북노회는 안수기도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므로 노회의 결의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해지방시

58 『경북노회 제12회 회록』 1922. 6. 14.

59 『경북노회 제10회 회록』 1921. 6. 15.

60 『경북노회 제8회 회록』 1920. 6. 11.

61 『경북노회 제9회 회록』 1921. 1. 12.

62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2회 총회 회록』 1923. 9. 8.

63 『경북노회 제13회 회록』 1923. 1. 3.

찰에게 위임하여 금지하게 하였다.<sup>64</sup> 이때부터 진흥운동은 신유의 역사가 동반한 진흥 부흥운동에서 주일학교 부흥이 중심이 되는 전도운동으로, 그 양상이 변화하였다.

지금까지 김익두와 김성로, 그리고 여러 경북노회 소속 목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진흥운동의 모습은 1924년 이후부터는 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약한 교회에 진흥 교역자를 파송하고,<sup>65</sup> 그해 10월에는 진흥주일을 실시하여 진흥운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sup>66</sup>

그러나 1930년부터 진흥위원회를 진흥방침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진흥운동은 기존의 진흥 부흥회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1930년을 진흥년으로, 1931년을 주일학교 진흥년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각 교회마다 희년전도대를 조직하여 희년전도에 참여하였다. 이에 각 교인들은 고향 친척들과 친구들을 찾아 개인전도에 힘쓰도록 하였다. 또 소책자인 『원입첩경』과 『학습첩경』을 각각 3천부를 발간하고, 또 성경암송과 예수교 초학문답을 각각 3천부 발간하여 각 교회에 처음 믿는 교인들이 한 권씩 책을 가지도록 권장하였다. 그리고 진흥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흥운동 통지서를 인쇄하여 각 교회에 배부하고, 권찰 구역 전도 방침을 가급적이면 각 교회에 실시하도록 권장하였다.<sup>67</sup> 그리고 5개년 진흥계획을 각 시찰에게 전임(專任)하여 연구하고 보고하게 하였다. 노회 진흥부는 진흥운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배가된 교회에 시상을 하였으며, 진흥운동을 환기시키기 위해 지방 면려회를 중심으로 악기를 준비하여 예배 때와 전도할 때에 사용하여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였다.<sup>68</sup>

64 『경북노회 제15회 회록』 1924. 1. 9.

65 노회는 진흥교역자의 봉급을 논의하기를 선교부에서나 전도부에 위임하여 지출하던지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노회에서 진흥위원 10인을 선택하여 윤회로 타락한 교회를 방문할 것(여비는 노회가 부담) 위원은 시무하는 교역자 중 목사, 조사 각 1인을 선택하되 1개월은 해교회에 노회 명령으로 허락받을 것(『경북노회 제15회 회록』 1924. 1. 9).

66 『경북노회 제15회 계속회 회록』 1924. 2. 19.

67 『경북노회 제32회 회록』 1934. 1. 2.

68 『경북노회 제37회 회록』 1938. 12. 13.

#### IV. 진흥운동의 역사적 의의

진흥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이나 진보주의 성향을 지닌 청년계층으로부터 몰역사적이며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으나, 암울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세계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진흥운동의 흐름에 동참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교인들에게 암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적 활력소를 불어 넣었다는 점에서 부흥운동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sup>69</sup>

진흥운동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진흥운동은 이전에 있었던 부흥운동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전 교회적 부흥전도운동이었다. 진흥운동은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906년 송도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9년 백만명구령운동을 이어주는 장로교 부흥운동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원산부흥운동은 평양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고, 평양대부흥운동은 한반도 전역과 해외에까지 파급된 신앙운동으로 한국교회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이들 부흥운동은 특정 주요 도시교회로부터 지방 주요 도시교회로 확산되었지만, 진흥운동은 주요 도시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농촌교회까지 확산되어서, 진흥운동은 문자 그대로 전국적, 민족적 부흥전도운동이었다.

둘째, 진흥운동은 한국교회의 수적인 성장과 3·1만세운동 실패 후 허무주의와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내적인 신앙의 성숙을 가져왔다. 장로교회는 1918년에 교인 수가 160,909명으로 증가하였는데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에는 16,838명이 감소한 144,062명이었다가, 1919년 말 진흥운동이 추진되면서 1920~1929년까지 평균 교인 수가 181,781명이었다. 1927년 159,060명을 제외하면, 1920년부터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1923년부터는 19만여 명이 넘게 되었다.<sup>70</sup> 대구·경북 교회의 경우에도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는데 1918년 교인 수가 15,331명으로 증가하다가,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 1,972명이 감소한 13,359명이었다. 이후 진흥운동이 추진된 이듬해 14,824명으로 가파른 증가세

69 閔庚培, 『大韓예수교長老會百年史』(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84), 416.

70 한영제 편, 『한국기독교성장100년』(서울: 기독교문사, 1986) 참조.

를 보이다가 1927년 12,118명, 1928년 8,609명을 제외하고는 1921~1929년까지 평균 교인 수가 2만여 명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sup>71</sup> 이 같은 추세는 1920~1923년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극심했던 재해와<sup>72</sup>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수탈정책으로 인해 만주로 이주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감안(勘案)할 때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sup>73</sup>

진흥운동은 교인 수의 증가라는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신앙과 삶에 변화를 주는 내면적 성숙을 이루는 중요한 운동이었다. 진흥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이미 밝혔듯이 신유의 은사를 금지한 1924년 전까지 진흥운동 내내 엄청난 회개를 동반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와 같이 성령을 동반한 회개의 역사는 신앙의 성숙을 가져왔고 삶을 변화시켰다.

셋째, 진흥운동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현대식 교회 형태를 갖추게 하였다. 진흥운동의 열기가 뜨거울수록 은혜받고, 육체·정신적으로 고침받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 자신의 집, 전답, 토지의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이 넘쳐났으며, 심지어 불신자까지 헌금을 하거나, 전답을 기부하였다. 이들은 목적을 두고 헌금·헌물(獻物)을 하였는데 교회부지 매입비, 한옥 예배당 매입비, 예배당 건축 증축비, 예배당 수리비, 마루 수리비, 교회 종각·종 구입비, 강대상 구입비, 의자 구입비, 시계 구입비, 난로 구입비, 풍금 구입비, 전도실 유지비, 학교 유지비 등 심지어 어려운 선교사를 위해 선교비를 지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일제는 경제침탈뿐만 아니라, 식량부족에 허덕이고 있던 자국민을 위해 식민지 조선의 토지를 폭력적으로 수탈하고, 일본 농민을 이주시켜 농업 전체를 지배하기 위하여 소위 토지조사사업(1910~1918)을 실시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된 당시는 한국선교를 위해 최초로 미국 북장로교 소속의 알렌(H. N. Allen) 의료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한지 불과 26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라 제대로 된 교회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진흥운동이 전개되면서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자발적

7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회록』 1918~1930년 참조.

72 기독교회에서는 공전(空前)의 대수해(大水害)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基督敎聯合救濟會'를 조직하고 수재민을 구제하였다(『기독신보』 1924. 7. 29).

73 건설부 수자원국 방재과, 『수해통계총람 1916~1966』 (과천: 건설부, 1968) 참조.

인 현금·현물로 외형적인 교회 형태를 갖추 수 있게 되었다. 초기 한옥교회 건축 양식은 기와집이나 초가집을 매입, 또는 기부받은 후 그대로 사용하거나 부분적으로 개조해서 최소한의 집회만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 후 한식·양식의 절충식 교회 양식으로 발전하다가, 미국과 영국의 건축 양식에 많은 영향을 받은 서양식 건축이 교회에 새롭게 시도되었다.<sup>74</sup> 진흥운동은 한국교회의 한식 교회 건축 양식을 서양식 교회 건축 양식으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새롭게 교회 건축과 함께 강대상과 의자를 두고, 시계를 달고, 종각을 세우고 종을 달았으며, 풍금과 난로를 설치하여 현대식 교회 형태를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 V. 나가는 말

1919년부터 시작된 장로교 진흥운동은 1919년부터 1925년까지 제1차 진흥운동, 1929년부터 1934년까지 제2차 진흥운동으로 나누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과 백만인 구령운동, 그리고 진흥운동을 통해 이때만큼 한국교회가 복음에 대해 열려 있었던 적은 없었다.<sup>75</sup> 3·1만세운동의 실패 이후 패배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사회 분위기 가운데 한국교회는 자신들이 안고 있는 민족문제, 그리고 기아와 가난의 상황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흔히 신앙의 양상은 초월적 신비주의 신앙운동과 현실적 계몽주의 신앙운동이 대표적이는데 진흥운동은 영적·육체적 변화와 기적뿐만 아니라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특히 진흥운동을 추진할 당시 대구·경북지역의 교회는 3·1만세운동으로 인해 경북노회 노회장 정재순 목사, 서기 이만집 목사 등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 구속되면서 지도력의 공백 상태에 있었다. 또한 극심했던 수해와 한재, 그리고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수탈정책을 견디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

74 정원석, “한국개신교 교회건축 양식 연구” (서울: 연세대 석사학위논문집, 2000), 56.

75 W. N. Blair, “A Real Revival Needed,” KMF (July 1920), 138.

이 교회와 생활 터전을 버리고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교세에도 영향을 미쳐 교세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대구·경북지역의 교회는 장로회 총회의 지도 아래 진흥부를 조직하고 대구와 안동에 각 위원을 두고 총회 진흥부와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진흥운동을 전개하였다. 대구·경북지역의 진흥운동은 총회 소속 김익두 목사와 경북노회 소속 진흥위원회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 대구·경북지역 전역에서 진행되었다. 이들이 인도하는 진흥 부흥회는 교인들 뿐 아니라 불신자까지 찾아 들고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였다. 청중들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새롭게 믿기로 결단하는 이가 많았으며, 모이는 집회마다 소경과 절름발이, 그리고 중풍병자 등 각색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하여 진흥운동은 대구·경북 전지역으로 확산되었고, 부흥운동과 전도운동이 더욱 열기를 더해 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흥운동의 열기는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거나, 토지의 십일조를 드리거나, 심지어 불신자까지 헌금을 하고 교회에 토지를 기부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당시 교회들은 기존의 초가 예배당에서 예배당 칸수를 확장하고 개축·증축하였으며, 초가에서 와가 또는 반양제로 신축하였다. 또한 교회마다 앞을 다투어 유행처럼 한식 교회 건축 양식에서 서양식 교회 건축 양식으로 전환하였으며 교회를 수리하고, 종각을 세워 종을 달고, 강대상, 의자, 시계, 풍금, 그리고 난로를 설치하여 비로소 현대식 교회 형태를 갖추어 나갔다. 그리고 교회 내에 사숙과 학교를 설립하고 교사(校舍)를 신축하는 교회도 있었다.

이처럼 진흥운동을 통해 교회는 새로운 영적 각성 및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민족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빛이 되고,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흥운동은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을 제공하는 한편, 제2차 진흥운동(1929년부터 1934년까지)을 통해서는 주일학교의 진흥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주일학교의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참고문헌]

- Roy E. Shearer, Wildfire. *Church Growth in Korea*. Grand Rapids: Eermans, 1966: 66.
- W. N. Blair. "A Real Revival Needed," *KMF* (July 1920), 138.
- \_\_\_\_\_. "Presbyterian Forward Movement in Korea," *KMF* (January 1920), 15.
- \_\_\_\_\_. "Report of the 'Forward Move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for 1919-1920," *KMF* (November 1920), 223.
- \_\_\_\_\_. "The Progress of the Forward Movement in Korea." *KMF* (May 1921), 92.
- \_\_\_\_\_. "Figures That Speak," *KMF*, vol. II, no. 2 (Feb., 1906), 69.
- 加納安正 의. 『浦項誌』. 朝鮮民報社浦項支局發行, 1935.
- 강만길. 『日帝時代 貧民生活史 研究』. 서울: 創作과 批評社, 1987.
- 건설부 수자원국 방재과. 『수해통계총람 1916~1966』. 과천: 건설부, 1968.
- 김병희 편역. 『경북교회사』. 서울: 코람데오, 2004.
- 김승태. "종교인의 3·1운동 참여와 기독교의 역할." 『韓國基督教史硏究會』 25(1989), 22-24.
- 閔庚培. 『大韓예수교長老會百年史』.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84.
- \_\_\_\_\_. "김익두 목사의 부흥운동과 그의 치병문제." 『동방학지』 54,55,56(1987), 303.
- \_\_\_\_\_. 『일제하의 한국기독교 민족, 신앙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朴慶植.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支配』. 서울: 청아출판사, 1986.
- 박용규. 『안악산골-한국교회부흥목사 김익두 전기』. 서울: 크리스찬신문사출판국, 1968.
- \_\_\_\_\_.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04.
- 이상규.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서울: 도서출판 생명의양식, 2014.
- 임희국. 『경안노회 100년사』. 경기도: 경안노회100주년준비위원회, 2020.
- 정원석. "한국개신교 교회건축 양식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집, 서울: 2000.
- 채현석. "만주지역의 한국인 교회사." 『한국기독교와 역사』3(1994), 71.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 서울: 기독교문사, 1990.

한영제 편. 『한국기독교성장100년』. 서울: 기독교문사, 1986.

「기독신보」

『경북노회 회록』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 회록』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회록』

[Abstract]

**A Study on the Presbyterian Promotion Movement:  
Focusing on Daegu and Gyeongbuk in the 1920s**

Byong Hee Kim

(Daeshi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Historical Theology)

Various forms of faith movements took place in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up to the liberation era, including the Pyongyang Revival Movement in 1907, the Millions Saving Movement in 1909, and the Promotion Movement. Especially, the Promotion Movement was an evangelistic revival movement ardently promo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and was promoted nationwide in two stages from the end of 1919. from 1919 to 1925 and the second was from 1929 to 1934.

This study examines the promotion movement tha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newing Korean churches and Korean society after the 3.1 Independent Movement. In particular, the focus was laid on the most active promotion movement in churches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in the 1920s because it was a part of explaining the nature of the Presbyterian Promotion Movement nationwide.

Churches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promotion movement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of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es in those areas suffered leadership crisis due to imprisonment and arrest of leaders caused by the 3.1 Independent Movement. Moreover, the flood, disaster, and Japanese colonial exploitation damaged severally on finances

of the churches.

Churches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invited Pastor Kim Ik-du to hold a promotion revival conference. In particular, pastors of the Gyeongbuk Presbytery supported the promotion revival conference throughout the churches. As a result, wherever the promotion revival conference was held, members of churches were obsessed with the grace and works of the Holy Spirit, cried and decided to repent and believe anew. They gave a tithe of properties and offerings voluntarily, and even unbelievers gave offerings which caused to repair, expand, renovate, build, and buy church buildings. In addition, offerings caused to form a modern type of church which contains bell, pulpit, clock, organ, and a stove.

**Key Words:** The Promotion Movement, the Promotion Revival Conference, the Promotion Bible Conference, building chapel, the laying hands, the healing

